

Meet Psychology

# 심리학을 만나다

심리학과 법



심리학을 만나다

Vol. 22, No 9

2013 년 9 월

심리학을 만나다

는 기존의 웹진을 새롭게 바꾸어 만든 한국심리학회 월간 소식지입니다.

회 장 | 김정호  
발 행 인 | 김경일  
편 집 | 김경일, 강민서  
학생편집장 | 김민주, 이이나  
학 생 기 자 | 이주연, 정인경  
최연지

발행처 |  
(사)한국심리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층

대표전화 |  
02-567-0102

# CONTENTS

## [ 9월 이야기: 심리학과 법]

커버스토리  
심리학과 법 ..... 3

기획기사  
심리학, 법을 업그레이드 하다 ..... 5  
심리학과 법정,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 7

에세이  
국민참여재판 ..... 10

인터뷰  
박광배 교수(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13

## [ 학회소식 ]

9월 모학회 소식 ..... 16  
9월 분과학회 소식 ..... 19

## [ 분과분야소개웹툰 ]

웹툰:상담심리학 분야 ..... 21

## [ 기타소식 ]

신규회원 ..... 26

## 심리학과 법

글. 김민주 학생기자

“아동은 자신을 위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한가?”

“판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단의 크기는 커야 하는가, 작아야 하는가?”

“목격자의 진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학문이 있다. 바로 ‘법심리학’ 이라고 불리는 분야이다. 법심리학은 독립적인 학문영역인 심리학과 법학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 학문이다. 얼핏 보기에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두 분야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바로 인간 행동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권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시킴으로써 인간 행동을 통제하고자 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을 통해 일관된 행동 통제를 가능케 한다(박광배, 2002). 즉, 인간 행동의 통제를 통해 학문의 정체성을 이루는 법학과 인간 행동의 통제를 위해 연구하는 심리학이 상호작용할 때 유용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법정에서는 1907년 최초로 사회과학 연구가 법정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Channels, 1985). 여러 가지 근로조건하에서의 여성근로자들의 사망률에 대한 조사연구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 후 1945년에는 백인아동과 흑인아동의 분리교육에 관한 재판에서 흑인아동의 자기개념이 미치는 분리교육의 악영향을 발견한 Kenneth Clark의 연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부터 법 집행에 대한 심리학의 개입이 다시 본격화되었다. 1971년에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교육과 종교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었다(Wisconsin v. Yoder, 1971). 이후 법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연구에도 심리학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박광배, 2002).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경찰에서 공식적인 수사기법으로 프로파일링을 사용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인지 면담을 통한 진술분석 결과가 법정에서 최초로 증거로 채택되었다. 한편 2008년부터 한국심리학회 산하 법정심리학회가 출범하여 학문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법심리학의 역할은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심리학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리학 연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 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법을 더 준수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 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심리학이 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싶다.

최근 심리학과 법의 관계가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 연구 영역은 주로 심리학자들의 법정증언과 관련된 '법정심리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법의 합리성이나 심리적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심리학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법정심리학, 범죄심리학 등과 더불어 법과 관련된 인간행위 전반에 걸친 연구들이 법심리학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광배, 2002). 9월 소식지에서는 그 중에서도 법정심리학에 초점을 맞추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심리학적으로 조명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기사 내용에 대한 첨언 추후에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기자들의 기사를 통해 법심리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박광배 (2002). 법심리학. 서울 : 학지사

※ 본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한 법심리학 저자이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광배 교수님께 감수 받았습니다.



## 심리학, 법을 업그레이드하다!

글. 최연지 학생기자

우리가 알다시피, 개개인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은 법과 합쳐지면 법심리학이 된다. 법심리학은 그동안 법의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활약을 펼쳐왔다. 판정의 정당성에 기여하거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연구 및 예측하는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심리학은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즉 법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모든 법은 구현하고자 하는 바, 혹은 법 정신을 기초로 한다. 그러한 법 정신이 과연 구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거나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근거가 된다. 정책평가로서의 법심리학은 법 제정 및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Monahan and Walker, 1991).

실제로 오늘날 법은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있다. 국회나 정부는 물론 법원의 새로운 판례들에 의하여 새로운 법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존의 법들이 끊임없이 개정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제도의 변화가 치밀하고 공정한 평가과정을 언제나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한 현실이다.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는 매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사형제도는 범죄를 감소시키는가? 과속운전의 단속에 의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가? 등의 의문은 법심리학의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밝혀질 수 있는 의문들이다(박광배 외, 1998).

법심리학이 법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된, 즉 법심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법철학의 Realist 운동(1920-1930)이 그것인데, 이 운동은 Columbia 대학, Yale 대학, 그리고 Johns Hopkins 대학의 법대교수들을 중심으로 법대 교육제도의 개혁운동에서부터 시작된 법철학적 사조이다. 법 교육은 이론적인 법 논리와 절차상의 기술(legal technicality)만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되며,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실과 실제 관행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적 철학이다(박광배 외, 1998).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법정 최고속도가 110km/h일지라도, 교통경찰이 120km/h를 초과하는 차량만을 단속한다면 120km/h가 실제 법이다. 따라서 법대생들은 실제 운전자들과 교통경찰들이 실행하고 있는 법 즉, 실제로 적용되는 '실재의 법정최고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만약 판사의 판단이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면, 법대생들은 성격이 판단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박광배 외, 1998).

정책평가가 법심리학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은 법심리학의 영역 안에 있는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며, 적용하는 법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전

문가들은 법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배경과 이념의 변화에 대하여 심리학자들보다 더 민감하므로 어떤 법정책이 어떤 목적을 어떤 수준까지 달성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영역에서 법 정책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학자들보다 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다. 즉, 법제도의 어떤 영역에서 실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법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그 파악된 필요성을 심리학자들이 실증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는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박광배 외, 1998).

그러나 심리학자와 법 전문가 양쪽이 각자의 시각과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편적으로만 구매의 손길을 보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 실무자들이 심리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비판 없이 개별 사안에서 그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수용한다면 법관의 판단 작용에 대한 또 다른 비판과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심리학자들 역시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공유를 토대로 할 때에 바른 재판을 위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안대희,2010).

심리학이 법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당한 법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제도의 합리성, 법 절차의 정당성, 보다 바람직한 법 집행방식 등에 관하여 심리학과 법이 서로 더욱 협력하여 서로의 관점과 지식을 교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심리학이 섬세한 연구방법과 방대한 이론체계를 이용하여 보다 발전된 법체계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박광배, 최상진, 이훈구(1998), 법심리학의 영역.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Vol. 17, No. 1, 49-71

안대희(2010), 법적 판단과 심리학.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121-134

Monahan, J. and Walker, J (1991). Judicial use of social science research. Law and Human Behavior, Vol. 15, 571-584.



## 심리학과 법정,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 : 진술과 관련하여

글. 이이나 학생기자

#### ■ 영화<도가니>와 <살인의 추억>의 공통점은? - 진술의 중요성!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에 대한 범죄를 다룬 영화 <도가니(2011)>와 특정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살인이 벌어져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살인의 추억(2003)>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를 주된 소재로 삼은 동시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목격자 및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영화 모두 증언을 하는 사람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지능을 갖고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언어구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박노식씨가 연기한 백광호는 몸만 다 자란 성인일 뿐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사고할 지능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들의 강압에 못 이겨 사건 피해자인 '향숙이'의 이름과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다가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몰리게 된다. 그리고 영화 <도가니>에서는 지능은 정상범주에 속하나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 또는 지능이 정상범주에 속하지 않아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자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몸은 다 자란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백광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 영화 속의 범죄 피해자들처럼 아직 언어구사능력이나 사고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의 진술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 ■ 기억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 Loftus의 실험

심리학자 Loftus는 사람의 기억에 대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바로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당신은 어린 시절, 디즈니랜드에서 벅스버니 캐릭터와 악수를 한 적이 있다'는 식의 디즈니랜드에 대한 거짓 광고를 보여준 뒤 디즈니랜드에서의 개인의 경험을 진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벅스버니는 디즈니가 아닌 워너브라더스의 캐릭터이므로 실제로는 벅스버니를 디즈니랜드에서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16%는 자신이 디즈니랜드에서 벅스버니를 만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에 대한 실험을 통해 기억이란 쉽게 변형되거나 왜곡될 수 있고 심지어는 없었던 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김민식·손영숙·안서원, 2005).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모하는 기억의 특성은 진실을 가려내어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아동의 경우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왜곡되거나 전혀 다른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학자는 인간의 기

역 및 진술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진술 속에서 진실 찾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이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직 의사소통 기술이 서툰 아동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혹은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사실조차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조은경, 2008).

Ceci와 Bruck(1993, 1995)은 그 이유로, 아동의 증언은 성인의 경우에서보다 그 타당도가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 대상이 어린 아동이거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 등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대상의 증언이 필요할 때 법정에서의 심리학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Ceci와 Bruck(1993, 1995)은 아동 증언의 특징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증언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특히 무언가를 유도하는 질문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을 해 주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 믿는다는 것이다(김민식·손영숙·안서원, 2005).

범죄피해사실을 증언하는 아동의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정확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 중 하나는 독일에서 개발한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이다. 이는 그 아동이 실제로 겪은 일에 대해 진술하는지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 도구가 개발된 독일에서는 CBCA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은경, 2008).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술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진술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전문 영역임이 인식되고 있다(조은경, 2010). 또 다른 도구로는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해부학적 인형’을 들 수 있다. 실제로 2004년도에는 정신지체 언어장애 2급이었던 피해자가 해부학적 인형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자세하게 증언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장애 상태를 진료한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어 용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방승배, 2004). 그러나 해부학적 인형은 적절한 면담방법과 함께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아동이 기억회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탈된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한다(조은경, 2009).

### ■ 법정 속 심리학자의 역량 - 진실을 가려낼 훌륭한 도구!

아동 및 장애를 가진 이들의 진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진실을 가려내는 데에 있어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일견 법정과 심리학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억에 기반을 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역할을 심리학자가 할 수 있다. 아무리 법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억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진실을 가려내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실과 사법절차 사이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리학자이며, 이러한 심리학자의 역할을 통해 심리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심리학자의 판단 혹은 의견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거나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억의 왜곡 및 오기억(false memory)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어 옴에 따라 그러한 연구결과들이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자의 법정 속 활동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 - 참고문헌 -

- 김민식·손영숙·안서원(2005). 인지심리학. 박학사.
- 방승배(2004). 성폭행당한 언어장애인 '인형통한 간접진술' 증거인정. 문화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86736>에서 2013.08.17. 자료얻음.
- 이재웅·조은경(2009). 해부학적 인형 사용과 조사자의 질문유형에 따른 성폭력 피해 아동의 반응 연구, 피해자학연구, 17(2): 133-149
- 조은경(2008). 2008 대검찰청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공판중심주의에 적합한 전문가 증인 활용 방안.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1-75.
- 조은경(2010).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피해자학 연구, 18(2): 53-65.
- Braun, K. A., Ellis, R., & Loftus, E. F. (2002). Make my memory: How advertising can change our memories of the past, *Psychology and Marketing*, 19: 1-23.
- Ceci, S. J., & Bruck, M. (1993). The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 본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한 연구의 연구자이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식 교수님과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은경 교수님께 감사 받았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 - 배심원의 목소리가 들려

글. 이주연 학생기자

법, 재판, 대법원. 이와 같은 단어들을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을 가지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듯 멀게 느껴지는 사법 제도나 재판 과정에 대해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마 전 23%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작품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국선전담변호사를 돕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해당 작품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나 국민참여재판 등 사법제도를 세밀히 다루고, 재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드라마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대법원의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법률신문, 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주요 스토리 전개상 2번의 굵직한 국민참여재판이 자세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변호사, 판사, 배심원, 원고 및 피고 등 각각의 입장이나 서로 간의 관계, 재판의 과정과 특징들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실제로 지난 7월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핏캐



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김어준 탄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경향신문, 2013).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경우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

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써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배심원이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열립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역할은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증인 신문을 지켜보며 질의하고, 변론절차를 지켜보며, 변론종결 시 유·무죄에 대해 논의하여 평결을 내리고, 판사와 함께 양형(형벌의 정도)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을 향해 사건을 설명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에서도 배심원을 설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우선 각 법원에서 주민등록부를 기준으로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를 만듭니다. 그 후에 해당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배심원 후보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 검사, 변호인이 배심원 후보자가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유연성을 갖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냉정한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사건에 비해 무죄율이 높고 항소율이 약간 낮은 경향은 이러한 점을 반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심제의 함정'으로 유명한 실제 사례인 'O.J. 심슨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스포츠 스타였던 O.J.심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배심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일컫습니다. 당시 모든 정황 및 물증들이 O.J.심슨을 살인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으나, O.J.심슨 측이 고용한 스타 변호인단에서 사건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이 사건이 수사 담당자들의 인종차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흑인인 O.J.심슨이 범인으로 몰린 것이라 변호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배심제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치매 걸린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 70대 할머니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여성신문, 2013). 점점 국민참여재판은 드라마 안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널리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많은 사람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재판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실제 세상의 관점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과 감정적 판단에 치우칠 수 있다는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들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3. 7. 12).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21043161&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21043161&code=940301)에서 자료 얻음.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http://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에서 자료 얻음.

법률신문 (2013. 9. 4). 대법원,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팀에 감사패.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8198>에서 자료 얻음.

여성신문 (2013. 7. 25). 치매 간병하다 자살·살해 잇따라... "복지서비스 태부족".

<http://www.womennews.co.kr/news/59535#.Uiw9tq6wfiV>에서 자료 얻음.

#### - 사진 -

'너의 목소리가 들려' 공식 홈페이지. <http://yourvoice.sbs.co.kr/>에서 자료 얻음.

부산일보 (2013. 8. 28). [국민 외면 받는 국민참여재판] 하. 활성화 대책.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828000070>에서 자료 얻음.



## 법정심리 전문가에게

### 현 사법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묻다

- 박광배 교수님(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인터뷰 -

정리. 정인경 학생기자

#### Q. 법정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문적 목적이나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잖아요? 법정심리학도 마찬가지로 다만 법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 재판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연구, 사람들의 법을 지키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에 관한 연구,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증거를 해석하는 데에 관련된 연구 등이 있죠. 하지만 꼭 모든 학문이 실제에 적용이 되어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법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과 마음이 궁금하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법정심리학이 어디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법정심리학은 아까 얘기한대로 법에 관련된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는게 목적이예요.

#### Q. 그렇다면 법정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문이라는 것은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야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면 학문이 발전이 되겠지요. 발전이 되면 법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대해 많은 지식이 축적되겠고, 지식이 축적되면 학문적인 활용도 높아질 것입니다. 즉,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생겨야 발전이 되고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적용 가능성과 인지도도 높아지죠. 그렇지만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사실 법정심리학이나 법심리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얼마 안됐지만 법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대한 연구는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수사관이 범인을 잡으려고 연구하고 조사했던 것도 다 법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법을 어기는 것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는 행동 또한 연구대상이예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행위는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따라서 법정심리학이 굉장히 오래된 학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Q. 우리나라 배심원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사법체계에서의 배심원제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 입법, 사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과 입법은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법체계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식이죠. 따라서 국가의 사법과정을 민주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직접 사법 판단을 하는 제도인 배심원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도입 과정에서 배심원은 몇 명이어야 하는지, 만장일치제가 적합한지 다수결제가 적합한지 등에 대해 저는 법정심리학적 측면에서 함께 참여했죠.

**Q.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나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제가 연구해 보고 싶은 분야는 판사들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재판과 관련한 증거도 많아야 하고 증인도 많아야 하고 또 재판은 하루에 끝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종 결론은 아주 간단한 판단이에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에서 끝은 결국 유죄냐 무죄냐 이죠. 그 신기한 일이 모두 판사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진실은 하나인 그 과정에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단순명료하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 체계가 판사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판사 스스로도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하여 현재 법관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Q.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근거가 바로 과학수사 자료인데, 과학수사의 오류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수사의 오류로 인한 오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판사나 배심원들이 과학수사의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분야는 신빙성이 높고 또 낮은지 그 발전 정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판사나 배심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거짓말탐지기나 목격자 증언은 신빙성이 낮은 편이고 DNA자료는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는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증거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법정까지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혈액이나 정액, 타액 등을 채집하는 것도 사람이고 분석실로 가져가는 것도 사람이며 증거를 분석하는 것도 사람이예요. DNA분석은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과학이라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증거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한 증거의 오염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과학적 증거를 잘 활용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죠.

**Q. 상대의 반복적인 질문에 의해 자신의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상대가 원하는 방향의 응답을 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허위 자백의 문제가 이와 관련된다고 보는데,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이유와 허위자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수사기관은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니가 했어? 니가 했지? 진짜 안했어? 솔직히 말해. 했지?' 라는 식으로 계속 묻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묻다가 상대가 지치면 또 한 번 쉬고 나서 며칠에 걸쳐서 수사는 계속돼요. 이렇게 수사관은 범인을 잡으려는 아주 강한 욕구가 있고 그러다보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허위자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으면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남들이 자기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받다보면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죠. 처음에는 계속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에 의해 그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하면 사람은 상황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혐의자가 조금이라도 범행 인정에 타협적인 측면을 보이기 시작하면 수사관은 회유를 하기 시작해요. 진작 고백했으면 이렇게 힘든 수사를 안 겪어도 되었다는 식으로 다독여주죠. 그리고는 휴식을 줘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혐의 인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설득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서 혐의자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본인 스스로가 범인이라고 심리적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고 혐의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허위자백의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허위자백의 발생을 예방하려면 먼저 허위자백을 초래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취침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거나 이를 이상은 취조를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 일단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체포 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을 확보해야 해요. 따라서 미란다 원칙을 잘 지키면 허위자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Q.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응답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법정심리학이나 법심리학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 학문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예요. 취직하는 수단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라 법정심리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9월 모학회 소식

### 1. 김정호 학회장님 취임사

존경하는 원로 회원님과 선배 회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회원과 후배 회원 여러분,

한국심리학회 1946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6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심리학회는 선배님들의 선구자적인 희생과 회원님들의 애정 어린 노력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심리학회는 12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14개의 산하 분과학회로 구성되어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심리학회는 2024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심리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ICP)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 및 코엑스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한국심리학회에서는 SCOPUS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는 12개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지를 포함한 13개의 학회지를 통해 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심리학회는 그 동안 6000명이 넘는 다양한 심리전문가와 심리사를 배출함으로써 심리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직업적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심리학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활동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심리학자의 사회적 인식은 충분히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상담, 심리자문 등이 심리학자의 전문적 영역임을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겪고 있는 민간자격 등록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심리학자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먼저 우리 심리학자들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도움을 주는데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미온적이지는 않았는지 등 심리학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심리학자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리학자의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심리학자법' 제정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상담, 심리자



문 등은 심리학자의 고유한 전문적 활동으로 법적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회원들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심리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가칭) 심리학자법 제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칭) 심리학자법 제정 추진 위원회'에서는 심리학자의 전문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잘 보장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법으로 제정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심포지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한국심리학회 내에서 통일된 안이 만들어지도록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 임기 내에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들이 공감하는 일이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칭) 심리학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매년 일 년에 한 번 이상 전국적으로 '(가칭) 심리학 박람회'를 열어 우리 심리학자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춰 국민들에게 심리학적 지식을 알리고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상담, 심리자문 등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리학 박람회는 그 자체가 심리학자의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리학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심리학자의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심리학회에서 수여하는 심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회원들이 활동하는 센터나 병원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스마트폰의 앱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심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심리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심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국심리학회 회원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는 의사들이 무료로 진행하는 건강 관련 강의나 워크숍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관, 학교 등을 통해 심리 서비스를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자나 심리학자가 일하는 센터 등을 알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차원에서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의 MOU 등을 통해 심리학자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심리학자들의 사회적 기여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학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심리학의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형태로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심리학의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행되는 웹진에 일반 대중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심리학회 산하 분과학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과

학회에서 심리학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과학회는 한국심리학회라는 전체 심리학회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심리학자 전체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적 기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로 회원님과 선배 회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회원과 후배 회원 여러분,

현재 한국심리학회는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심리학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심리학자의 수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기일전하여 안으로는 더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며, 밖으로는 심리학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면서 심리학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모두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학문적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양질의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심리학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5대 한국심리학회장 김정호

## 2. 김교현 전임 학회장님-김정호 현 학회장님 인수인계식 진행


2013년 9월 6일 김교현 전임 학회장님-김정호 현 학회장님 인수인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9월 분과학회 소식

제 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http://kcp.or.kr/>)

### 1. 2013년 가을학술대회

 <p>2013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13 Autumn Conference of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p> <p>임상심리학의 최신지견</p> <p>2013 Autumn Conference of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10.10. 목 - 11. 금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한민도국제대학원대학교</p> <p>주최 한국임상심리학회 후원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p>	<p>2013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가 10월 10일 (목)부터 11일(금)까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과 한반도 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1일차 일정 : 10월 10일(목) - 워크숍 - 사례회의</p> <p>■ 2일차 일정 : 10월 11일(금) ☞ 심포지엄 ☞ 학술논문(포스터/구연) 발표 ☞ 총회 및 만찬</p>
---	---

### 2. 하반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등록/수료보고/모집보고/수료보고

2013년 하반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등록/수료보고/모집보고/수료보고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기존	변경
수련신청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
모집보고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수련내용보고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온라인 직접입력 접수
수료보고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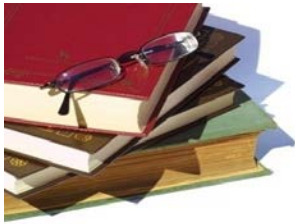
제 3분과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http://www.ksiop.or.kr/>)

### ▣ 2013년도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주제 : 중고령자의 경력 연속성과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역할
- 일시 : 2013년 10월 25일(금)
- 장소 : 한국 잡월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주요일정 :

10월 2일(수)	구두 및 포스터 논문 발표 신청 마감
10월 9일(수)	구두 및 포스터 논문 발표 최종 원고 제출
10월 25일(금)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심포지엄, 구두/포스터 발표 -

제 14분과 한국코칭심리학회(<http://coachingpsychology.or.kr/>)



< **신생 자격증 안내: 코칭심리사 & 코칭 심리 전문가** >

한국코칭심리학회의 정체성과 발전을 위한 코칭심리 관련 자격제도가 생겼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코칭심리에 더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코칭심리학회 홈페이지(<http://coachingpsychology.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보<sup>21</sup>

# 심리학 포개기

## 상담심리학

고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나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지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문적 상담**이란  
친숙한 관계에서 으레 나누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학습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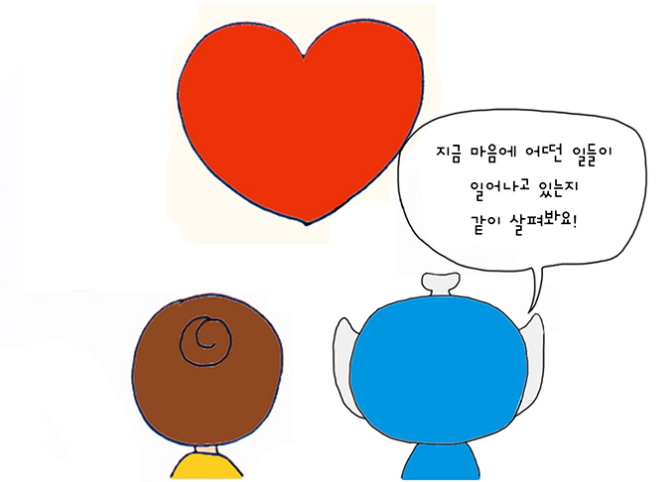
그리고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지요.



**내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옳이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해결방법을 가르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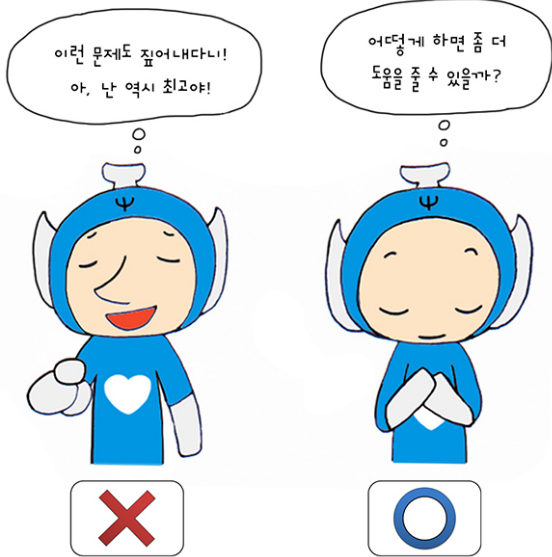


즉 상담자는 해결사나 치료사가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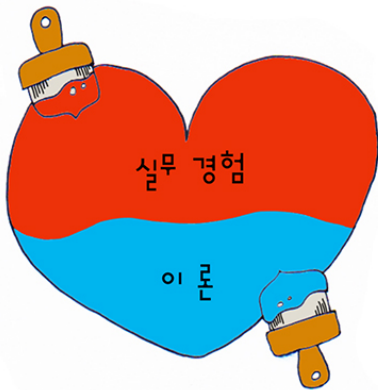




그렇기에 상담자는 자기만족을 위해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담자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인간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전문가로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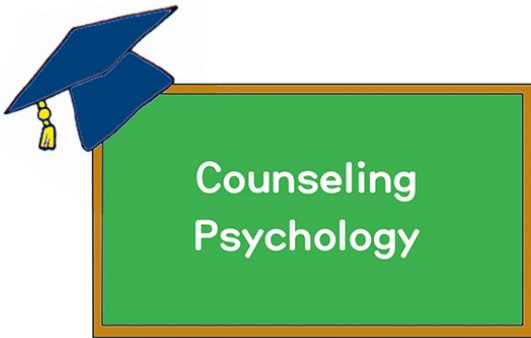
이를 위해 **상담심리학** 교육과정에서는 검증된 상담이론을 비롯하여 성격심리학·발달심리학 등 다양한 이론적 학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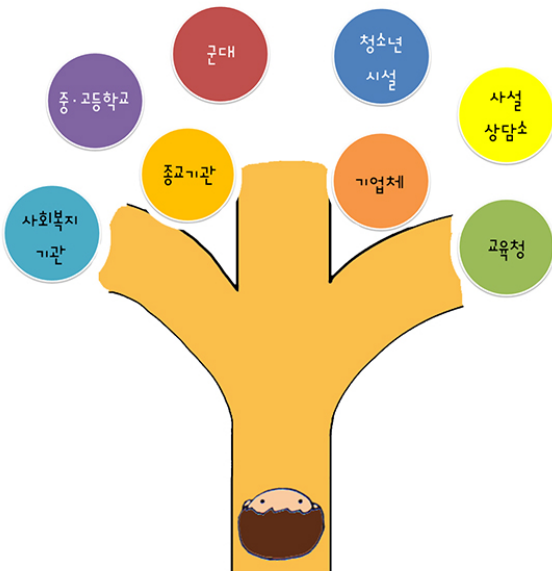
개인·집단상담의 기법, 심리진단·평가, 사례분석 등 상담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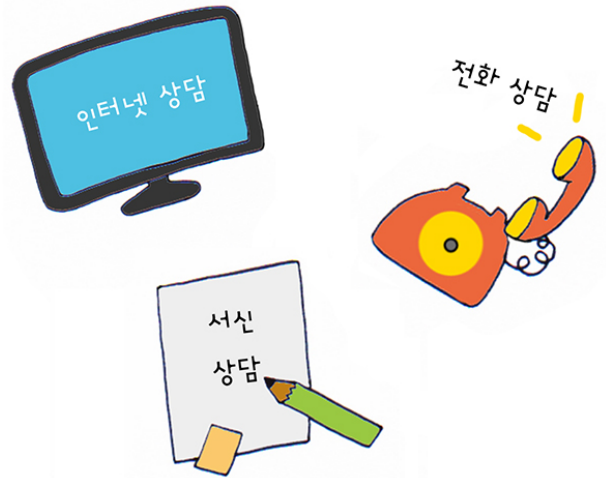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설, 사설 상담기관, 교육청, 사회복지 기관, 종교기관 부설 상담소, 군대, 교정기관 등에서 전문 상담가로 활약하며,



기업체의 상담실이나 인재 관리팀에서 상담전문가로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대면 상담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상담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처럼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담 방식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상담심리학의 활용영역 역시 크게 확장될 전망입니다.





## 만 드 는 이 들



### 이상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과 인문학 간의 밀당 스페셜리스트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망라하고픈 학생  
[웹툰] 「심마니의 심리학 디딤돌」 제작 및 연재



### Sora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발달심리학 전공  
그림으로 읽는 생생 심리학,  
부모들이 읽는 아이들 생생 심리학 저술  
소라의 생생심리학 블로그 운영 중.

## 신 규 회 원

(2013년 7월 20일 ~ 9월 19일까지)



### 정회원(259명)

강다겸,강명선,강수정,강은영,강현이,고윤숙,공세영,곽소정,곽익현,곽주현,권순옥,권순흥,권영웅,권윤나,권지현,권혁찬,기현정,김경예,김경예,김길순,김나래,김다솔,김란희,김명선,김문선,김미숙,김미영,김미정,김미진,김민경,김민선,김상아,김상희,김선미,김성애,김성호,김소연,김소원,김수정,김승옥,김시내,김신실,김아름,김연수,김영숙,김우정,김원수,김윤희,김은빈,김은정,김정숙,김지현,김지혜,김지훈,김진서,김태영,김태희,김해나,김행복,김현숙,김현지,김혜련,김혜영,김희연,노우빈,류경희,류진아,류호식,문가영,문두석,문상희,문은주,문지영,민지원,박경옥,박동주,박삼숙,박선자,박세나,박소영,박수경,박수영,박애경,박예진,박은영,박정숙,박종수,박종원,박주영,박지영,박진희,박진희,박현영,박희훈,방미라,방보경,백민경,백수영,백인순,백혜진,변경혜,변중석,서미정,선혜란,설윤정,성미향,성정아,손소영,손은영,송미화,송순자,송은혜,송지은,송지희,신금옥,신진동,신채영,신초희,신현자,심나정,심민정,심보현,심원경,안유선,안재희,양현주,양형준,엄미선,엄정호,엄현주,여현주,연희진,오연경,오일영,오정은,왕윤정,용미주,우영주,우종완,원수영,위현옥,유미선,유미영,유병윤,유석인,유승현,유영은,유지혜,윤경선,윤들래,윤미순,윤민형,윤소라,윤수란,윤아름,윤영수,윤진경,이나영,이도형,이동엽,이동준,이명경,이문선,이미나,이미선,이미정,이미정,이상미,이상아,이상희,이새현,이서현,이성욱,이썸,이소연,이소영,이수경,이수현,이승혜,이안나,이연규,이유린,이유미,이유일,이윤호,이은성,이은영,이자영,이재선,이정희,이주현,이주혜,이준석,이지영,이채연,이하연,이현숙,이현숙,이혜선,임소담,임원범,임윤선,임하라,장경임,장진숙,장한나,장혜림,장혜원,전경은,전민,전운숙,전정운,정경미,정미라,정성호,정소미,정용미,정유미,정은애,정은진,정재완,정진영,정하나,정현기,정혜영,정혜윤,정효선,조미영,조수연,조아라,조윤경,조은숙,조은주,주하나,지혜경,채병준,최보영,최숙,최영미,최영섭,최영숙,최유니,최윤영,최진영,하정희,하형주,한규옥,한소희,한유정,한현주,허미나,홍광국,홍명숙,홍미현,홍진이,황선애,황성욱,황영화

### 준회원(100명)

강리영,강보영,고종숙,곽보경,권영,권오진,김가영,김경숙,김금주,김기숙,김문주,김미란,김민서,김보선,김수정,김영옥,김영자,김용준,김이경,김인영,김정아,김종임,김지연,김진아,김평강,김해숙,김현정,나현주,남현지,류혜라,문지현,박나연,박선민,박선희,박용천,박은혜,박정희,박현재,방종미,백소림,서경숙,서영은,손민주,송정용,신경아,신문우,신유나,안미라,양하영,엄윤섭,오아영,유광현,유재경,윤서원,은미진,이경숙,이기범,이리자,이미옥,이미현,이상훈,이세연,이솔,이수진,이영주,이원미,이인숙,이정숙,이종수,이종현,이지영,이지혜,이진영,이하늬,이한경,임성란,임수연,임우경,전은미,전은혜,전지선,정성희,정수진,정지혜,정혜영,조경현,조이슬,조재문,진혜숙,채길원,채은진,최경숙,최명주,최미경,최수지,최유진,한승화,한지혜,홍수민,황정미